

장맛비에 또 무너진 장등천 옹벽 광주시, 부실공사 재시공 나선다

사업비 67% 증액 등 의혹 제기
옹벽 양 옆 10m 가량 추가 보수

광주시가 3차례 보수공사에도 최근 장맛비로 또다시 붕괴한 북구 장등동 옹벽을 장등천 호안블럭(옹벽)을 전면 재시공에 가까운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내린 장맛비로 장등천 장등1교 옆 옹벽이 높이 3m, 폭 2.5m 정도 무너져 내렸다.

장등교는 2016년 3월 완공 이후 하천과 도로가 마주한 지반이 내려앉고 갈라지는 등 문제가 계속돼 올해 초까지 모두 3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내린 장맛비로 공사를 마친 곳이 붕괴해 부실공사와 허술한 준공 검사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무너져내린 옹벽에 모래 가마니를 쌓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특히 장등교 공사는 지난해 시 감사에서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뤄지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보완 시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의회에서도 장등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67%나 증액되는 등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부풀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광주 북구 장등동 장등천 장등1교 옆 옹벽이 지난달 28일 내린 장맛비로 높이 3m, 폭 2.5m 정도 무너져 내렸다. 광주시는 무너져내린 옹벽에 모래 가마니를 쌓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있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무너져 내린 옹벽 양옆으로 10m 가량을 추가해 최대 폭 30여m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육안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도로까지 모두 파헤쳐 붕괴 원인을 찾아내기로 했다.

건설본부는 설계사와 감리 등의 기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장등1교에 맞는 재시공법을 선택해 이달 중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인을 확인하고 나면 시공사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공사 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등천 정비사업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2013년 8월에 사업비 55억1천700만원에 발주, H건설이 시공을 맡아 2년여 공사 끝에 2016년 3월 완공했다.

장등1교는 길이 19m에 폭 14m, 장등2교는 길이 22m, 폭 9m로 만들어졌다.

이주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목2과장은 “정기적 하자보수 점검 기간에는 옹벽을 뜯어내고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육안상 균열이 있는 곳에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무언가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붕괴 재발을 막기 위해 폭 30여m를 완전히 철거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재명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 복구, 재정자치 구현

예산 편성에 주민 아이디어 듣는다

광주시 복구(청장 문인)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재정 자치 구현에 나선다.

복구는 오는 31일까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및 제안해 예산에 반영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수혜 주민이 많고, 지속적인 혜택 공유가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구분된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현장 확인 및 제안사업별 사전 설명회를 거쳐 주민 모바일 전자 투표와 시민 위원 전

체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최종 결정한다.

복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접수 및 등록, 복구청 기획조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관 주도의 예산편성 과정을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해 실질적인 재정자치를 확대시키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92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받아 총 719건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 /김남중 기자 5555knj@

작년, 전남 귀농·귀촌 '4만명' 넘었다

지난해 전남의 귀농·귀촌인이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년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통계'를 보면 전남의 귀농·귀촌인은 전년보다 2006명 증가한 4만607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은 전국이 1.9% 감소했지만, 전남은 0.1% 상승한 2909명 (1925가구)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귀촌은 2.7% 상승한 3만7698명(2만8173가구)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전남도도와 각 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각종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시군 팸투어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귀농·귀촌 초기에 경험 미숙 등 위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강화, 농업인 단체와 멘토-멘티를 체결, 현장을 찾아가 진단·처방을 해주는 이동기술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도시민들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의 기회를 활용해 2015~2018년 귀농·귀촌인 12만 70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농촌활력증진 도모와 병행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구례군, 야생화 꽃나물 상품 완판행진

구례군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해 구례군 대표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으로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머핀, 쿠키, 장아찌, 즉석 비빔밥 등 야생화 꽃나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4일 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전남 장성군은 올해 1분기(1~4월) 귀농·귀촌 총 인구수가 '416가구 6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귀농·귀촌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3년 한해 유입인구 555명을 앞질렀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도시민 귀농·귀촌 프로그램. /뉴스

전기·수소·고효율 내연... 친환경 '車이야기' 나눈다

2018 국제첨단차기술콘퍼런스

내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전기차 전문가 13명 미래전망 제안

'2018 국제첨단자동차기술콘퍼런스'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첨단자동차기술 콘퍼런스(ICAT)는 배터리 장착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정책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주제를 다루는 국제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EV(Electric Vehicle) Green'

라는 주제로 전 세계 12개국의 대학 자동차연구소, 연구센터, 자동차 회사 및 부품회사의 전기자동차 전문가 13명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 기술과 시장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제안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인공인 신진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구두 10편과 포스터 39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주니어 세션도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카 전문 전시회인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한 공간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 받는다.

콘퍼런스는 전남대 자동차연구

소, BK21+사업단, 울산대, 호남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이 공동주관하며 광주시, 한국자동차공학회 후원으로 열린다.

최병철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장은 “콘퍼런스가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함께 열려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봉재명 기자



/유통이미지

목포어린이도서관

초등생 전통놀이 체험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오는 13일과 20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2018 학기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떨치고 친구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전통 악기 태평소를 만드는 시간도 갖는다.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며, 목포 시내

와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부모 세대는 자라는 동안 노는 것이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었으나 요즘 초등학생은 공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자녀에게 교과 관련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도 행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mokpolib.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